

제34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요약

◆ 전자 회의록 보고

○ 2018년 추경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

주요내용

- 수입예산 합계: 95,741,937원 / 기초의 자금: 54,211,108원 / 총계 149,953,045원
- 지출예산 합계: 108,958,837원 / 기말의 자금: 40,994,208원 / 총계 149,953,045원

○ 2019년 본예산(안) 심의 결과 보고

주요내용

- 수입예산 합계: 94,994,581원 / 기초의 자금: 40,994,208원 / 총계 135,988,789원
- 지출예산 합계: 96,409,602원 / 기말의 자금: 39,579,187원 / 총계 135,988,789원

◆ 심의사항

○ 2018회계연도 산학협력단 결산(안) 심의

- 2018회계 산학협력단 결산(안) 보고 및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제34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19. 5. 21(화) 10:00 ~ 11:00

2. 장 소 : 성의회관 3층 교수회의실

3. 참석자 : 전신수 위원장, 서한석 Fr., 이재열 Fr., 이동현, 이석형, 박경호, 이선미, 유희주, 이정화, 라병학 위원 (이상 10명)

* 위임장 :

* 불참 : 구본만Fr., 윤호중, 김세웅, 김대진, 김경수, 조재형, 김형권, 박희우, 김병조 위원 (이상 9명)

* 배석 : 박수연 UM (이상 1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함.

4. 회의내용

가. 개회 선언 : 전신수 위원장

나. 시작 기도

다. 전자 회의록 보고 : 라병학 팀장

▷ 라병학 팀장: 제33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보고

** 주요내용 **

(1) 2018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원안 가결

(2) 2019회계 본예산(안) 심의: 원안 가결

▷ 전신수 위원장 : 전자 회의록에 대해 이견이 없으면 회의록 보관하고 심의사항 진행하겠음.

라. 심의사항

◆ 안건 1 : 2018회계 산학협력단 결산 심의

▷ 전신수 위원장 : 라병학 팀장에게 보고 지시

▷ 라병학 팀장 : [결산보고] 자료를 참고로 설명함.

1. 요약 재무상태표 보고

(1) 유동자산 666.4억, 비유동자산 79.5억, 자산총계 745.9억

2019년 연구비 조기 입금에 따른 영향으로 현금성자산 증가

비유동자산 중 장기투자금융자산이 4.9억 증가하였으며,

주요원인은 ㈜에스엠생명과학의 손상차손 회복 4.8억이 반영

(2) 유동부채 443억, 비유동부채 25.9억, 부채총계 468.9억, 기본금 277억

2019년 연구비 조기 입금에 따른 선수수익이 106억 증가하였음.

2. 요약 운영예산서 보고

- (1) 연구수익 735억, 간접비 125.2억, 전입금 및 기부금수익 8.1억, 기술이전수익 14.2억, 이자 및 운영외수익 12.1억
총 수익계 894.8억
- (2) 연구비용 703억, 일반관리비 19.9억, 간접비용 76.8억, 학교회계전출 102.2억, 기술이전비용 4.3억, 운영외비용 0.3억
총 비용계 906.7억
- (3) 당기운영차익 -11.8억 (당기순손실)
외견상 손실로 보이나, 학교회계로 전출한 금액 102억의 영향임
실질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였음.

3. 5년간 수익 분석 및 교정별 수익률

- (1) 2018회계는 직전년도 대비 83.8억 증가, 5년전 대비 262.1억증가
비율로 환산시 전년대비 10.33%, 5년전 대비 41.42% 증가
- (2) 성의교정: 전년대비 15.13%, 5년전 대비 57.5% 증가
성심교정: 전년대비 -14.67%, 5년전 대비 12.16% 증가

- ▷ 전신수 위원장 : 선수수익이 100억 가량 증가한 것은 2019년도 연구비가 조기 입금된 것으로 아시면 될 것이고, 운영예산서에서 수익부분은 2017년에 비해서 80억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의 불륨이 그 정도 증가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지출도 동일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년치 자료를 살펴보면, 연도별로 수익의 편차가 있음. 2015년도와 2018년도 수익이 많이 증가함. 데이터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분석하는 것도 좋을 듯 함.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성심은 연도별로 편차가 있음.
성의는 지속적인 증가가 전체적인 증가를 이끌고 있음.
- ▷ 이동현 위원: 성심교정이 편차가 심한 것은 연구비 수주 사이클에 따른 영향임
다년도 과제가 끝나면 수익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 ▷ 전신수 위원장: 모수가 적기 때문에 그럴수 있음.
재무상태표에서 부채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음.
- ▷ 라병학 위원: 그렇습니다.
- ▷ 전신수 위원장: 전체 보고 내용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음
- ▷ 이동현 위원: 학교회계 전출금의 증가로 인해 결산서상 마이너스로 보이는데, 산학협력단 결산서상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적절한 금액을 학교회계 전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임
- ▷ 이재열 위원: 학교의 필요를 위해 전출금을 많이 집행한 것은 사실이고, 결산서상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있다면, 조금 생각할 의제인 것 같음.
- ▷ 전신수 위원장: 회계상 마이너스로 보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 라병학 위원: 학교회계 전출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플러스이나 학교를 위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된 것임. 외부회계 감사 시에도 '산학협력단의 설립 목적이 학교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도 있기 때문에, 전출로 인한 마이너스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받음.
- ▷ 이동현 위원: 성심교정도 동일함.
- ▷ 이재열 위원: 지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실질적인 이익과 전출금을 분리해서 표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산학협력단회계는 저렇게 표현되는 것인지?
- ▷ 전신수 위원장: 동일한 의견. 산학협력단의 이월금을 학교로 전출하는 것인데, 운영예산서 상으로는 마이너스로 보이나, 빚을내서 지출하는 것처럼 보임
- ▷ 라병학 위원: 병원회계와 산학협력단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표시형식에서 차이가 있음.
- ▷ 전신수 위원장: 그렇다면 회계는 마이너스이나, 학교회계 전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학교회계 전출은 각 대학별 정책에 따라서 조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음.
타대학의 경우, 연구 공간에 대해서 연구자에게 임대료 수익을 발생시키고, 학교회계 전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우리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학교에 전출금을 보내는 것은 연구자에 대한 혜택을 돌아가게 하기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
다만, 표현법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는 것은 고려해볼 사항임.
- ▷ 서한석 위원: 기타운영외 수익/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 ▷ 라병학 위원: 주식에 대한 평가이익 회복을 표현한 것임
- ▷ 이정화 위원: 공동기기센터에서 들어온 수익은 기타운영외 수익으로 보고있음.
- ▷ 이동현 위원: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분류에 관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님
- ▷ 전신수 위원장: 운영외 비용?
- ▷ 라병학 위원: 운영외비용은 연구자들의 불인정 금액 금액 일부, 미사용 이자수익에 대한 지원기관 반납 등을 지원하고 있음.
- ▷ 이석형 위원: 용어대환 설명을 한 장 정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 이선미 위원: 증감 표시를 삼각형을 이용해서 아래 위를 표시해서 가독성을 높여주면 좋을 것 같음
- ▷ 전신수 위원장: 서강대학교와 우리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크기가 비슷함. 다만, 서강대학교는 의대가 없음. 현재는 전체적인 증감을 표현하였는데, 다음에는 대학목표 2025PLAN 과 관련된 지표도 함께 다루어주기를 바람.
- ▷ 이선미 위원: 건의사항이 있음. 간접비 운영에 있어 운영 메카니즘이 궁금함
- ▷ 전신수 위원장: 성심/성의 각 교정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적인 간접비 운영에 대한 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특히, 성의교정의 경우에는 일반대학교에 비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적게 운용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에게 논문재료, 특허관리비, 인프라 감가상각비, 학교회계전출금 등으로 재투자하고 있음. 연구자들에게 임대료 등을 받지 않는 등으로 지원하고 있음. 연구자에게 재투자하는 비율이 타대학에 비해서 높음.

- ▷ 이석형 위원: 고정비용이 많아, 운영위원회를 통해 연구자를 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음.
- ▷ 이선미 위원: 연구자를 위해 행정인력등이 더 지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 드렸으나, 산학협력단 차원에서 크게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많음이 이해가 됨.
- ▷ 전신수 위원장: 축자의 연구자의 경우, 연구비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해주시기를 원하는 연구자도 있으나 효과면에서 부적절함. 타 대학의 경우, 연구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연구공간에 대한 공간임대료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음. 지금 가톨릭대학교의 경우, 연구자들에게 효익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 ▷ 이선미 위원: 연구자들이 충분히 혜택을 받고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는 되었음. 다만, 다수의 소액연구비를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음
- ▷ 전신수 위원장: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들을 위해, 연구를 잘 할 수 있도록 비용 없이 공간과 특허출원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 간접비로 대형연구과제 중심의 연구자들 뿐만 아니라 연구비가 적은 연구자들도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 ▷ 이석형 위원: 이선미 위원님은 관리 인력 등을 랩실에 지원해 주는 등의 요청을 주시는 것 같은데,

- ▷ 박항준 실장 : [심의안건 2] 자료를 참고로 출자 개요 / 기대효과 / 업무 진행상황 / 회사현황 / 회사개요 / 출자 내용 등을 설명함.
- ▷ 강진한 위원장 : 2년전 산학협력단과 ㈜메디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메디원은 회사 운영상 초기 단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화장품 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지정하여 국제적으로 육성 및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바이오기술의 관점에서 화장품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으므로 ㈜메디원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 박항준 실장 : (강진한 위원장의 질의에 대하여) 가치평가는 부가세 별도로 1천만원의 건적을 뽑아 놓은 상황임.
- ▷ 윤건호 위원 : 동양에서 신규법인 설립이후 타 투자건으로 추가적인 투자 진행을 유보한 상태라 결손이 발생된 상황이나 다행히도 작년에 올리브영, 홍콩, 마카오 등에 진출한 상황으로 사업 전망이 밝은 상태임. 동양그룹 차원에서도 상당 부분 정리가 되었고 우리 대학이 ㈜동양생명과학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메디원과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동양생명과학의 적자분으로 인하여 ㈜메디원도 영향이 있는 상황이므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함. 현재는 ㈜메디원의 이사로 참여하면서 경영에 관여하고 지금보다 좋아지는 시점에 자회사 흡수가 좋을 것임.
- ▷ 박항준 실장 : 약식 기업가치평가를 진행한다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올 수 있으나 비용을 1천만원 들여서 현재 매출을 반영하여 미래가치를 포함한 기업가치평가를 진행한다면 손실이 큰 평가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임. 회사 설립 초기에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대학측 이사 등재를 미뤄둔 상황이나 금번 자회사 흡수를 통하여 이사 등재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시너지를 발생시키고자 함.
- ▷ 강진한 위원장 : 자회사의 불륨을 키울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한 안건이며 향후 증기청 등 정부 지원사업 수주를 위해서 자회사 규모를 최소 5개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임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1) 임팩트바이오텍

- ▷ 박항준 실장 : [심의안건 3] 자료를 참고로 출자대상 기술 / 출자개요 및 기대효과 / 업무 진행상황 / 특허의 출자 /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과제 신청 등을 설명함.
- ▷ 강진한 위원장 : 발명자(조미라 교수)의 보고 및 이사회 검토 등의 과정이 있었으며 산학연공동연구법인 기획과제 선정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한 기술의 추가 개발을 계획 중임. 사업 진행의 필수요소인 고가 단백질 개발을 위하여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MOU 체결을 위한 사전 회의를 계획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2) 'CU NANOTECH' (가칭)

- ▷ 박항준 실장 : [심의안건 3] 자료를 참고로 출자대상 기술 / 출자개요 및 기대효과 / 업무 진행상황 / 특허의 출자 설명 후 나 건 교수의 설명을 요청함.
- ▷ 나 건 위원 : 대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산업화에 가장 근접한 특허를 활용한 기업의 설립을 준비하였으며 준비 과정에서 성심교정 내부의 동의 부재 및 최소한의 투자 가능 금액인 3천만원의 투자를 통하여 설립 진행하고 향후 추가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을 설명함.

- ▷ 강진한 위원장 : 초기 현금 출자금 규모 및 용도와 관련된 사항,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비용의 부담 등을 부연 설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 ▷ 박항준 실장 : [심의안건 4] 자료를 참고로 자본금 출자의 필요성 / 현금 출자 의결사항 (성의산학협력실 1억5천만원, 성심산학협력실 3천만원)/ 출자대상 / 출자금 사용계획(자회사 출자비, 기술가치평가비, 인건비, 관리비, 법무비) 등을 설명함.
- ▷ 강진한 위원장 : 자본금 증자(안)은 본 위원회 후 보고사항이므로 심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회사 3개사 설립의 내용으로 연구재단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함.**
- ▷ 윤건호 위원 : 기관 차원의 회사 설립 및 창업 교원 지원시스템(협의체, 보고라인, 홍보 방안 등) 개발과 교원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부분위기 조성, 확산 등의 역할을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주관하여 진행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함.
- ▷ 강진한 위원장 : (일본 오사카의대 외 여러 의대에서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산학협력의 사례를 소개하며) 산학협력단과 기술지주회사 외 대학의 조직도 동참하는 것이 필요함을 설명함. 지난주 참석했던 기술지주회사 관련 간담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지주회사 지원을 통한 고용창출 및 동력산업 발굴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우리 대학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사업화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었음. 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안건도 준비하겠으며 기술지주회사 차원에서도 대외적인 홍보를 진행하겠음.

바. 마침기도

사. 폐회 선언

기록자 박수연